

근기요산회 2008년 12월 납산회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 하늘공원의 식회에서 권영익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중동 고문이 세모 덕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동권씨근기요산회安東權氏近畿樂山會가 2008년 12월 20일 토요일에 한해를 보내는 납산회納山會를 겸한 월례산행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월드컵공원'을 탐방하였다. 10시 집결시간에 전철 6호선 월드컵공원역 대합실에 모인 30여 회원은 10시 20분쯤 그곳을 출발하여 경기장 북문 광장과 연결된 풀무골 등산 등산로로 올라, 철수된 군부대로서 건국초 군의 형장으로 쓴 바도 있던 분동지盆洞地를 에두르는 능선을 종주하였다. 11시 반쯤이 된 시각에 큰길을 횡단

하여 난지천蘭芝川공원으로 이동해서는 지역난방공사 고갯길로 하여 완만한 포장도로를 타고 하늘공원에 이르러 식회式會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영익權寧翼 회장의 소개로 모처럼 요산회의 행사에 동참한 전노동부장관 권중동權重東 고문이 인사말을 하면서 세모의 덕담을 겸한 일강一講을 하여 회원들의 의미깊은 이해의 박수를 받았다. '천지일근千枝一樹'라는 말로 흔히 종족宗族을 일컫는데 이는 가지는 천 개이나 그 뿌리는 하나라는 뜻 이라고 말

문을 연 권중동 고문은 그 대의를 간명히 설명하고 우리 안동권씨는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이가 적지 않은 성씨인데 '선대에서는 그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게 명예를 고이 지켜왔으나 근세에 들어 우리 권씨의 천 가지에도 썩은 가지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가지가 많이 썩는다 해도 뿌리가 튼튼하면 언젠가 가지는 반드시 건강하게 무성해질 수가 있다'는 요지로 짧지만 의미심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회원의 감명 어린 박수를 자아냈다.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권정택權貞澤 회원은 관내 행주산성의 충장사忠莊祠와 기공사紀功祠의 상향축문常享祝文이 동일한 것과 석주石洲 권필權驥 공의 시비詩碑를 행주산성 경내에 세우는 일 등에 관한 최근의 소식을 전했다.

식회와 점심식사를 마친 뒤에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혹시 음식한 것이 체할 것을 우려하여 권병일權炳逸 총무의 선도로 국민보건체조를 실시하고, 하늘공원 정상을 일주 횡단하여 하늘 계단길로 내려와 구름다리를 건너 평화공원을 종단하며 둘러보았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컵공원은 정확히 서울 마포구 성산동 390-1 번지 일대에 있다. 원래 난초처럼 향기롭고 지초芝草처럼 아름답다 해서 난지도蘭芝島라 명명한 이 섬 80여 만평이 악취를 내뿜는 쓰레기산으로 변한 것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동안 서울

시의 생활 쓰레기 9천200여만 톤을 버려 쌓아올린 때문이었다.

이 쓰레기산의 악취와 메탄가스가 빠지고 생태계가 장화되려면 50년이 걸린다는 등 버려진 소리가 다 많았다. 이것이 2002년, 10년도 채 안되어 거대한 월드컵경기장과 거기에 연계된 5개의 테마공원으로 둔갑하였다. 이러한 변이를 처음 둘러보는 권중동 고문은 과거 정부의 각료와 국회의원 등으로 국가시책에 참여할 때 이 난지도쓰레기장 문제에 대해 부심한 적이 있는데 이같은 생태테마공원으로 변이한 데 대해 놀라움과 감회를 금치 못해하였다. 그런데 그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가 썩어도 다시 푸르려진다는 일강이, 쓰레기산은 썩은 가지 1천개이고 튼튼한 한 뿌리는 그 밑에 깔렸던 난지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입시키는 바이기도 하여 더욱 시사하는 뜻이 깊었다.

2002년 5월 1일에 개장된 105만평 규모의 월드컵공원은 평화의 공원·난지천공원·난지한강공원·하늘공원·노을공원 등 5개의 테마공원으로 되어 있다. 이들 5개 공원을 통칭하는 것이 월드컵공원이다.

월드컵경기장 남문쪽에 위치한 평화의 공원은 생태연못·산책로와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난지천공원은 하늘·노을공원과 상암동 사이를 길게 동서로 흐르는 난지천을 따라 조성된 공원으로 자전거도로·야외공연장·게이트볼장·생태관찰원 등이 있다. 난지한강공원은 난지도 매립지 남쪽 한강 고수부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각종 들꽃단지와 조깅코스·캠핑장 등이 있다.

하늘공원은 난지도 제2쓰레기 매립지에 들어선 초지공원으로 평화의 공원과는 육교로 연결되어 있다. 정상의 넓은 부지에는 억새·해바라기·메밀 등 높은 키의 식물과 낮은 키의 엉겅퀴·제비꽃·썬바귀 및 토끼풀 등을 심었으며 2000년부터 나비를 풀어 번식시킴으로써 난지도 식물생태계의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5대의 풍력발전기와 전망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노을공원은 난지도 제1쓰레기매립지에 들어선 공원으로 그 총면적의 57%에 골프장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자연식생지·운동시설 및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한강 하류쪽에 위치하여 서해쪽으로 펼쳐지는 해질녘의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다. 하늘·노을공원 중간 둘레에는 마라톤 코스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쪽은 자유로가 지나고 있다.

<사진 권奇允·글 권五燾>



▲ 권익현 고문이 선두에서 하늘공원의 계단길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화재·건강등 어떤 보험이든 하나만 들으시면
安東權氏宗報 陵洞春秋 구독회비는 무료가 됩니다!

국내 모든 보험회사의 온갖 상품을
일가분의 선호에 맞춰 완벽히 설계해 드립니다!

안동권씨정보사 종합보험 대리점

대표권병일

서울종로구필운동288-1 02)723-4480 · 전송02)738-8935011-289-1747

■우리가취급하는국내의대표적손해보험회사: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동부화재·메리츠화재·제일화재·LIG(LG)화재
·흥국쌍용화재·그린(국제)화재

Happy Forever
삼성화재 SAMSUNG

H 현대해상

동부화재

MERITZ
메리츠화재

1 제일화재

LIG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

GREEN
그린(국제)

우리는라이프사이클변화에따른체계적보상과자유로운선택의맞춤설계형보험으로일가고객모든분께만족을드립니다!
실속있는맞춤선택에서충분한보상까지어떤보험상품이각자에게필요할까,
섬세한컨설팅을통해고객별로최적의맞춤형보험을만들어드립니다!